미륵불의 출현 장소와 성함

赦罪天旹救衆生

하늘의 조씨가 죄를 사하여 중생을 구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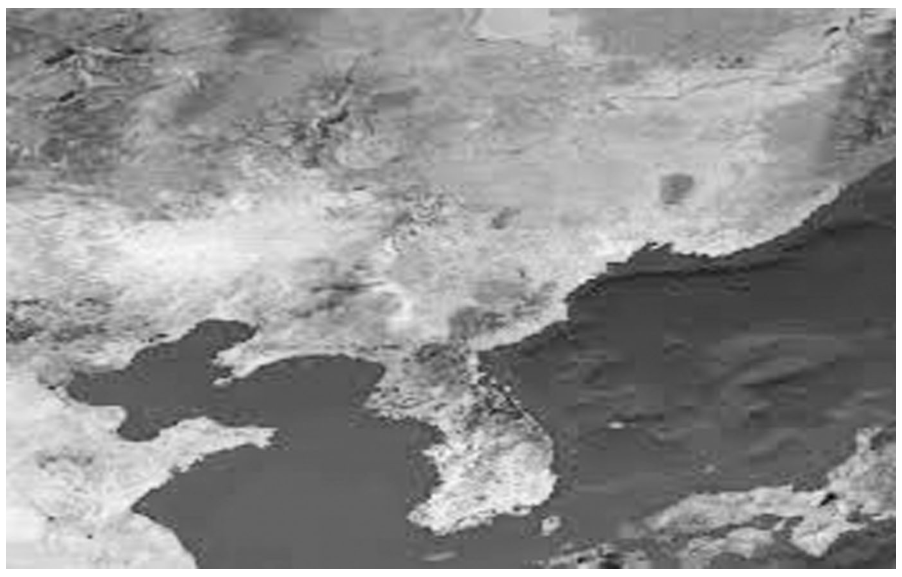
1. 경전 상의 미륵불 출현장소

將來之世有佛名彌勒出現於世
장래지세유불명미륵출현어세
爾時國界名鷄頭王所治處
이시국계명계두왕소치처
(增一阿含經 49卷 非常品 49)

장래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오시는데, 미륵이라 하나니 세상에 출현 하실 때, 그 나라의 이름은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인가?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미륵불이 출현하신다 했으니 계두왕(鷄頭王)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신라 탈해왕(脫解王)이 아들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림(始林)숲 속에서 닭이 울기에 이상히 여겨 찾아가 보니 거기에 큰 금 궤짝이 나무에 걸려 있고, 그 밑에 흰 닭이 울고 있었다. 금 궤짝을 열어보니 안에 옥동자가 있어 그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다. 이를 기념하여 시림(始林)을 계림(鷄林)이라 바꿔 부르고 나라 이름도 계림으로 불렀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참조). 그러므로 계두왕이란 계림국의 우두머리 되는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계림국의 계두왕이다. 그러므로 계림국이 후에 신라가 되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러므로 미륵불은 한국에서 출현하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오늘날 우담바라가 한국 땅 전국 곳곳에 연이어 피어남은 석가모니(불교계에서 석존)의 예언이 정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륵불은 한국에서 출현한다고 불경에 예언되어 있다

2. 불경에서 말하는 미륵부처님의 성함

天旹錄人間善惡勞心報應
〈미륵하생경〉

하늘의 조씨가 인간의 선악을 심판한다.

旹還陽眞人始知天仙金丹大道
〈선불가진수어록 중에서〉

조씨가 진인(의인)이 되어, 최고의 영생의 도를 이룬다.

赦罪天旹救衆生
〈미륵진경〉

하늘의 조씨가 죄를 사하여 중생을 구제한다.

彌勒道樹下坐用四月
八日明星出時得佛道
〈불설미륵내시경〉

미륵불이 도 닦는 나무 아래 앉아서 4월 8일에 밝은 별이 나타났을 때에 불도를 얻는다.

미륵불이 세상에 인간 몸으로 태어나심을 예언한 경전인 '미륵하생경'과 '미륵진경' 속에 '하늘의 조씨가 중생들의 죄를 사한다'고 했으니 미륵부처님은 조(旹)씨 성(姓)으로 나오신다는 뜻이며, '명성(明星)이 나올 때 불도를 얻는다' 했으니, '명성' 즉 '밝은 별'이라는 뜻을 예언한 것이라 한다. 과연 감로가 내리고 미륵불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찾아야 할 때는 아닐까 생각 해본다.*

이내섭 장로/ (주)해동

속담 속의 영생학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격언이 있다.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다. 즉 늘 좋은 말을 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생활도 좋아지지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버릇이 되면 하는 일도 잘 안되고 운명도 나빠진다는 의미이다. 말은 행동을 하기 전부터 마음과 정신의 힘으로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이다.

자, 그러면 승리제단 구세주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3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말이 씨가 된다는 원인과 결과의 원리를 설파하신 말씀을 들어보자.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이었다. 사람의 몸은 피로 이루어진 몸이다. 마음작용은 피 작용이다. 마음먹은 대로 피가 변한다. 사람이 병들고 죽는 것도 피가 썩어서인데, 피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여 영원무궁토록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신다.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나는 영생이다'라는 영생의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 피가 안 죽을 피로 변한다. 사람의 주인은 마음이다. 웃으면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 웃어라.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영생 기도법으로 늘 멸마경을 소리 내서 외우고 마음으로도 외우면 내 몸 안에 죄가 눈 녹듯이 녹아져서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거듭난다. 말이 씨가 되어 이루어진다. 이 모든 말은 전 세계를 향하여 지구상에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이긴자 구세주님이 대한민국 소사 역곡 승리제단에서 (말이 씨가 되는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설파하고 계시는 것이다.*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루기

우리 말 띄어쓰기의 현실

우리 말은 크게 세 종류의 띄어쓰기로 구분할 수 있다. 신문에서의 띄어쓰기, 출판사 계열의 띄어쓰기, 마지막으로 학교 문법에서의 띄어쓰기로 구분 가능하다. 이 세 종류의 띄어쓰기는 모두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신문에서의 띄어쓰기는 지면을 아끼기 위해 문법 체계가 다소 무시되어 있고, 출판사의 띄어쓰기는 적당주의이고, 학교 문법에서의 띄어쓰기는 지나치게 띄어 쓰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모두에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일률성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어느 때에는 붙여 쓰고, 어느 때에는 띄어 쓰고, 또 어느 것은 띄어쓰기로 해 놓고도 그와 유사한 다른 것은 붙여 쓰는 따위, 문법상의 무질서가 뚜렷하다는 것은 우리 문법의 큰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좋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 사건은 붙여 쓴다.'라고 해놓았는데 즉, '임오군란'이나 '임진왜란' 따위는 붙여 쓰면서 '중일 전쟁'이나 '제2차 세계 대전' 등은 띄어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일률성이 없는 띄어쓰기로 말미암아 학생들은 물론 학교를 졸업한 일반인들, 심지어 출판에 종사하는 전문직업인들조차도 띄어쓰기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KBS 프로그램인 '우리말 겨루기'에 나온 출연자들이 가장 난색을 표현하는 문제가 띄어쓰기라는 것은 또 한 번 그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우리들의 뇌리 속에 어렵다고 각인되어 있는 우리말의 띄어쓰기를 이 코너를 통해 하나하나 실타래처럼 풀어헤쳐 나갈 것이다. 그래서 띄어쓰기에 자신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려운 마음은 생기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코너를 준비하겠다.*

이승우 기자

외국인을 영어와 일어로 전도합시다

진정한 순교란 어떤 의미인가요?
What is the meaning of true martyrdom ?
真の殉教と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

양심의 영 하나님이 '나'라는 자존심 마귀 영옥에 갇혀 있는 현재 상태가 인간의 모습이다.

God, the spirit of conscience is imprisoned in the spiritual prison of Satan, Self-consciousness. This is the actual state of human being at present.

良心の霊・神様が「私という意識」の悪魔の檻に閉じごめられている現在の状態が人間の姿です.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존심 마귀를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

For salvation's sake, therefore, Self-consciousness must be removed forever.

したがって，救いを得るためには「私という意識」の悪魔を永遠に除去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순교는 육적인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자존심을 없애는 영적인 순교를 말한다.

Martyrdom does not mean physical martyrdom by itself, but spiritual martyrdom that get rid of Self-awareness in human being's mind.

殉教とは，肉的な殉教を意味するのではなく，人間の心の中に「私という意識」をなくす精神的殉教をいいます.

나라는 의식을 죽이고 그 자리에 마귀 옥에 갇혀 있던 하나님이 석방되어서 자리하게 되면 나는 순교자가 된다.

When "I" die, and God, confined in the prison of Satan, gets freedom and become me, I am a martyr.

「私という意識」を殺して，その場に悪魔の檻に閉じごめられていた神様が解放され，いらっしゃるようになれば，私は殉教者になります.

시 한편 생각 한줄

나누기

이 밥을 나눔은 우리의 사랑을 나눔이니
그대들과 나는 이제 한 웃음 가진 것이라
이 술을 나눔은 우리의 사랑을 나눔이니
그대들과 나는 이제 한 울음 가진 것이라
그대들과 나 한 하늘 아래 났듯이
그대들과 나의 가슴엔 한 피가 흐르고
그대들과 나 한 땅을 딛고 살듯이
그대들과 나의 갈 곳도 오직 한 곳이라

지금부터 약 10년 전 텔레비전 방영 프로 중 훌륭한 이웃들을 방문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우연히 그 프로를 처음 접했는데 한 할아버지 의사가 주인공으로 나오셨다. 연세는 70대인데 7살 천진스런 개구쟁이 같은 미소를 지으시던 할아버지는 달동네에 의료봉사 다니시는 분이었다. 그 노(老)의사 선생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은 "하루 두 시간 자고 한 끼 먹게 해주세요"였다. 병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안스러워 1초라도 더 그런 이웃을 돌보고 싶다는 것이다.

그 의사 선생님이 다른 훌륭한 이웃을 추천하자 취재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두 번째 주인공을 인터뷰한다. 두 번째 나온 주인공은 40대 보일러 수리공이었다. 그는 시간만 나면 달동네 보일러를 손봐주고 설치해 주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었다. 그는 주위에 아직도 겨울밤 추위로 고생하는 이웃이 있다면서 황소처럼 큰 두 눈에 눈물을 글썽거렸다.

위 주인공들은 이웃에 대해 느끼는 연민이 큰 만큼 이들이 겪는 심적 아픔 또한 크다. 하지만 의술과 기술을 쉴 새도 없이 바쁘게 이웃에 펼칠 때 돌아오는 기쁨 또한 클 것이다. 위 시에 나오는 구절같이 '한 웃음'과 '한 울음'을 지니고 사는 분들인 것이다.

우리는 대개 나눗셈은 잘 하지만 자기 것을 이웃과 나누려는 의지, 다른 말로 사랑의 의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 그런 반면 위의 주인공들은 자신과 타인을 철저히 한 몸으로 여기고 타인의 입장에 서서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다. 그 마음속에 다른 생명체에 대한 사랑이 철철 넘친다.

화제를 잠시만 다른 쪽으로 돌려보자. 우리 살아있는 인간들은 공통적으로 생명을 지닌다.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하였는데 여기서 '마음'이란 구체적으로는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양심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강하게 만든다. 양심이야말로 자타가 지닌 생명을 동일하게 여기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 살벌한 지구촌에 온기를 불어넣어 우리 모두는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안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게 해준다. 우리가 자아의식이라는 껍질을 깨고 자아를 이 지구 땅의 전 인류 및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와 동일시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오지랖 넓게(?) 가족과 널리 이웃을 향해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어 한마음이 되어서 소통하고 희생한다면 늘 영적으로 행복하고 충만감을 느끼며 살 것이다.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인류를 내 몸처럼 여기고 전도에 매진하자.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한 하늘 아래에, 한 땅위에 우리가 가야 할 곳 지상천국을 빨리 건설할 것을 굳게 다짐하자. 그리고 칠십이 넘어도 늘 일곱 살의 순수한 동심과 웃음을 간직한 아름다운 구세주들이 되자.*

나준경 승사/ 대구제단 책임승사